

(국문번역)

무분별한 피임에서 유산으로

Contraception to Abortion

폴·막스 신부(국제인간생명협회회장)
(Fr. Paul Marx, President, Human Life International)

비인의 정신 의학자 Viktor Frankel은 언젠가 인간은 자신을 기만하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히틀러의 포로 수용소에서 세번이나 탈출한 이 사람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기술한 바 있다. 만약 어느 누가 진리를 거스려 말하고, 기술하고, 행동하고, 생활해 왔다면 이같은 일이 보다 어려워 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좋은 예는 피임이 결국은 유산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주교들과 신학자들과 지식인들이다. 증거는 산뿔미처럼 많다. 나는 이 사실을 30여개가 넘는 나라에서 보아왔다. 모든 국가에서 어김없이 피임은 유산을 유발하고 유산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유아살해나 안락사가 만발하게 된다. 성의목적이 출산과 가정에서 이탈하여 파괴되면 동성 성교가 그 흉칙한 머리를 쳐들게 된다. 성행위는 장난과 놀이가 되고 오락적 성과 출산을 위한 성 사이의 구별이 뚜렷이 이루어지고 10대의 임신과 낙태가 급상승 하게 되고 성병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이혼율은 증가하고 출생율은 떨어지고 한편 산아조절에 있어서 불임수술이라는 수의적 방법이 성행하게 된다. 가정의 통합성은 급격히 깨어지고 만다.

피임—유산(소위 대부분의 피임은 실제로는 유산시키는 것임을 상기하라.)이 문화적 양식이 되면 젊은이들과 그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점차로 무책임한 성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피

임을 한다면 임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을 때는—오직 원하는 아기만을 나아가 하므로—언제라도 유산이라고 하는 산아조절의 비상 안전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Planned Parenthood(PP)회합에서는 이 방법을 임신후 가족계획 혹은 Menstrual extraction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피임—불임수술이 생활양식이 되면 독신자나 결혼한이들편의 무책임한 성행위의 증가가 성병, 사생아 10대들의 임신, 낙태의 증가를 유발할 것이며 나팔관을 폐쇄한 여인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 방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불임수술을 야기시켰다. 오늘에 이르러 소위 의학 전문가들은 시험관 아기가 탄생되는 데는 수정된 작은 인간에게 잘못이 생긴 경우 유산시키는 데 대한 동의는 말할 것도 없이 수 많은 낙태와 자위행위들 그리고 다른 불의가 내포된다 할지라도 나팔관을 폐쇄시킨 여인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시험관 아기를 위한 수태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분별한 피임—유산이라는 연결은 명백하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오래전에 출생율은 수태율 이하로 떨어졌고 국가들은 내부로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출생율을 지닌 유일한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아일랜드도 피임과 유산을 낳아들이고 있으므로 유산병에 걸리고 말 것이라고 서슴없이 예견할 수 있다. 단언해서 대중적 피임을 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아름답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

위하고 있는 국가는 단하나도 없다. 확실히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과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유형과 영향의 보편성을 생각할 때 피임은 비록 그 직접적 제1차적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심없이 첫째가는 주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이미 들은 바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피임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예언과 같은 회칙 “인간생명”을 통해 명백히 들은 바 있다. 아직도 대단히 많은 주교들과 신학자들, 가톨릭 학자들이 이 회칙을 비할 바 없이 훌륭하고 예리하고 적절한 문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교황 바오로 6세가 유산시키는 약이나 IUD는 물론 피임이라도 승인했다면 오늘날의 세계가 무엇이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라. 산아조절의 대중을 이루는 오늘날의 불임수술은 다산조절의 수단으로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피임의 반 심미적 성격과 실패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전적으로 부당한 전통적 피임에 대하여 적나라 하게 기술하고 있는 1982년도 3월 4일자 Rolling Stones잡지를 읽어보라. 그리고 미래의 피임방법은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좌약식 피임약과 Depo-Provera 주사약과 같이 유산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외국에서부터 피임의 결과와 그 영향 및 피임의 후유증에 대해 터득한 바는 피임을 하는 부부들이 기대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유산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피임을 조장하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유산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하나도 없다.

교황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거듭하여 경고한 바 대로 피임을 하면 된다는 정신적 상태의 논리는 잔악한 것이며 많은 주교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 관한 주교시노두스에 대한 교황님의 응답인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는 성윤리에 관한 교회의 수세기의 가르침을 재언급하신 것인데 가톨릭 출판물에 의해 사장되고 무시되고 주교들에 의해서도 간과되고 있다.

피임과 유산과 불임수술의 사용은 여러가지 이

유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품위를 위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산—안락사라는 그 문화적 연결을 이유로도 그렇다. Sigmund Freud는 “성의 남용은 쉽게 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증가되고 있는 강간, 근친성교, 아이들과 부부들의 싸움, 패도필리아, 동성성교등을 생각해 보라. 물론 낙태와 피임간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다. 아무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산이란 단지 같은 정신적 상태를 한단계 더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여러 문헌과 모든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의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왜 많은 신학자들과 주교들, 가톨릭 학자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난날의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이 쓴 글에 당황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만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처럼 눈먼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치료법은 무엇인가?

또 다른 이유중 하나는 대다수의 주교, 신학자, 가톨릭 학자들 그리고 여타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느님께서 인간의 생식주기에 자연적 가족계획이라는 산아조절의 편리한 수단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과 “가정 공동체”와 같은 회칙으로 난처하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다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난처하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결국 하느님이 마련하신 방법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분명 신학교는 아니다. 가톨릭 대학들이나 가톨릭 출판물도 아니며 교회나 주교들의 교도적 가르침도 분명 아니다. 만약 주교들과 신학자들,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학자들이 오늘날의 성적 대학살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교황님과 마찬가지로 주교들도 성과 순

결에 대한 사목교서를 내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을 신학교에서 추방하고 신학자들은 가정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고 성실한 본당 신자들은 사제가 강론대에서 순결이나 „Humanae Vitae” 성윤리와 비윤리 그리고 모든 비윤리적인 것이 이혼이나 기타 다른 불의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등을 결코 강론해서는 안된다고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치료법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워싱턴에서 35만의 청중에게 연설한 바 대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혼인 소명의 영원한 영광에 따라 가톨릭 교육자와 부모들을 그리스찬 성에 있어 철저히 재교육해야 한다.
 - (2) 무엇이라고 불리든지 또 교과과정에 어떻게 배정되어 있든지 간에 모든 학교 교육에서 단체성교육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3) 모든 수준의 가톨릭 교육에서 그리스찬 성에 대한 과정과 정통적 가르침을 충실히 가르쳐야 한다.
 - (4) 가톨릭 신자들이 혼인하기 전에 그리고 최종학교의 첫단계에서 사랑과 관심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순결과 동정에 대해 철저히 가르치고 출산은 하느님이 주신 큰 선물임을 인식시키고 피임의 가증스런 결과를 인식시키고 그로써 혼인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식주기 안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다산조절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 (5)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이 다산을 조절하는 데

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며 종교라는 것을 떠나 모든 관점을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제가 단 한명도 서품되지 않도록 신학교 교육을 수정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러한 사제들은 마찬가지로 가정생활 교육과 그리스찬 성에 관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 (6) 가르치고 상담하고 간호하는 수녀들과 수련기에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해야 한다.
- (7) 최근 6명의 교황님과 마찬가지로 피임—불임수술—유산—안락사의 연관된 불의를 명백히 재천명하고 그로써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하느님의 진리를 몰랐다가나 경시함에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8)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문헌과 시청각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내고 혼인 전의 순결과 혼인 안에서의 신의에 관한 상식적인 그리스찬 메시지를 전자매체와 출판물을 통해 전파해야 한다.
- (9) 성 문제처럼 교회 일치적인 것은 없다. 따라서 환경을 정화하고, 외설물을 견책하고 가능한 많은 불의를 제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하기 위해 다른 그리스찬들, 유대 단체들 그리고 선의의 남녀와 함께 서로 협력해야 한다.
- (10)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활을 통해 이 가르침을 실현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해야 한다.